Original Article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4, Vol. 37, No. 4, 117-143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4.12.37.4.117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Received: September 22, 2024
Revised: November 27, 2024
Accepted: November 30, 2024

정은수
울진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장

교신저자: 정은수
울진 아동청소년 가족상담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2길 26

E-MAIL:
deepth@hanmail.net

Verification of the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Eunsu Jung
Uljin Child, Youth and Family Counseling Center Director

ABSTRACT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각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이 각각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1,401명의 분석 자료를 재구축해 PROCESS macro로 검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들 간 각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이 갖는 병렬다중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의 성격은 부분매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에서만 유의했다. 둘째, 특정매개효과 분석 결과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중 행동통제 곤란이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수행한 후 3가지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요어 :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화용언어능력, 집행기능 곤란, 한국아동패널, 병렬다중매개효과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생애주기적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초기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지리적 세계를 확장시킨다. 부모를 포함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온 아동은 이 시기부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기술을 습득해 적응상 필요한 제반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아동은 특히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과 사회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게 된다(Polan & Taylor, 2021). 그런데 요즘 학령기 아동들은 생애주기적 발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들 한다. 아동들에게 주의력 결핍, 품행장애, 부적응적 학습 양식, 충동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 조절 문제 등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들(공유경, 2023; 조미정, 이주연, 2022; Ayano et al., 2023; Brown et al., 2024)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디지털 기기 노출 과다(하나영, 이경은, 2020; Tsai, 2020; Yilbaş, & Karadeniz, 2022), 일상생활 스트레스(이래혁, 2024; Saccaro et al., 2021) 등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집행기능은 아동이 주위의 여러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고, 일부 반응의 억제를 도우며,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송현주, 2014). 이같이 개념화되는 집행기능은 아동의 학습이나 전반적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양윤희, 임동선, 2018; 전숙영, 2018; Anthony & Ogg, 2020; Beisly et al., 2020; Spiegel et al., 2021). 집행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특히 주의력 결핍(천희영, 2021; Silverstein et al., 2020), 문제행동이나 부적절한 학습 양식(강슬기, 서미정, 2023; Beisly et al., 2020), 정서 조절의 문제(하문선, 2021; Groves et al., 2022)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실증적 근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집행기능은 아동의 생애주기적 발달과 많은 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간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여러 국내외 실증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송현주(2014)가 지적한 것처럼 아동에게 있어 집행기능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인데, 이러한 지적은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기능에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변수로서 화용언어능력이 집행기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화용언어능력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수단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이끌어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진연선, 배소영, 2013). 초기 화용언어능력의 개념은 맥락적 언어 사용에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통용됐으나, 최근 들어 이것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초월해 사회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학령기 아동이 인적 관계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적응적 발달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적정히 계발되었을 때 공격적 행동이나 충동성이 감소하고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돼 학교 적응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장영은, 성미영, 2015). 반면, 학령기 화용언어능력의 결함은 과잉행동 문제를 드러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학업 성취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일으킨다(Mackie & Law, 2010). 이같이 학령기 아동에게

www.kci.go.kr

있어 화용언어능력은 적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서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실증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이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스마트기기 중독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김혜란과 김춘경(2021)의 연구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화용언어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김은향(2020)과 이미숙(2016)의 연구에서도 집행기능과 화용언어능력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거나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집행기능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행동도 많이 거론되어 왔는데,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간 유의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실증적 근거 또한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 연구로서 한영숙과 정영선(2022)은 부모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 외에도 계결과 서주현(2022), 홍은비와 정은숙, 노성향(2021), 민미희(2020) 등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개선해 집행기능이 향상되도록 돕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실증되어 왔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의 실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뒀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에 선행하는 유력한 변수이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후행하는 유력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그간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김혜란과 김춘경(2021)만이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두어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여러 문화권에서 이상적 양육행동 유형으로 거론되어 온 권위적 양육행동(Febiyanti & Rachmawati, 2021)은 단순히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온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부모가 추구하는 양육행동 유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행동에 주목하였고,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녀와의 심리적 연결성이 아버지에 비해 강한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으로 범위를 좁혀 실증 분석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화용언어능력은 여러 하위 요인들을 포섭하는 다차원 개념이므로, 각 하위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간의 각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이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습 및 학교생활의 적응과 또래관계의 형성을 방해하는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를 하위 요인으로 포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www.kci.go.kr

간 관계에서 이들 하위 요인의 세부적인 매개 경로를 실증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 아동상담 장면에서 아동의 적응성 확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연구 과제에 기초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각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 문제 3.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유의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다면, 어느 하위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가?

아울러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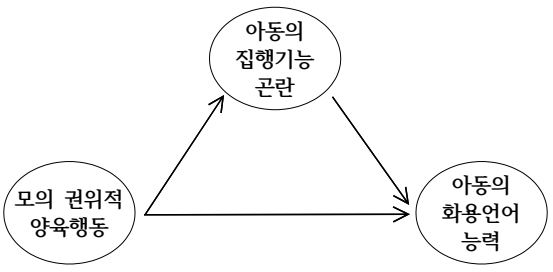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 응답자들 중에서 1,401명을 추출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연구 대상은 11차 조사 시기인 2018년에 만 10세의 연령에 도달한 학령기 아동들이다. 또한 이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곤란에 관한 제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이다. 한국

www.kci.go.kr

아동패널 홈페이지(panel.kicce.re.kr) 자료실에서 11차 조사 자료를 2024년 8월 11일 인출하였을 때 조사 응답자는 총 2,150명이었는데, 이 중 749명은 본 연구 변수들에 대한 측정값이 없는 결측치가 존재해서 완전제거법에 따라 조치한 뒤 본 연구에 활용할 최종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1년도에 14차 조사까지 완료된 원시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중간에 3회의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원시 자료 또한 별도로 공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총 17개의 패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원시 자료 중 본 연구가 1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변수로 설정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곤란에 관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패널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인 아동 1,401명과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아동의 성(性), 모의 연령과 최종 학력, 결혼 상태, 거주 지역의 규모와 권역,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인 아동은 남아가 712명(50.9%), 여아가 687명(49.1%)

표 1. 연구 대상 아동과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중(%)	구분		빈도(명)	비중(%)
아동의 성	남아	712	50.9	거주 지역의 권역	서울권	164	11.7
	여아	687	49.1		경인권	430	30.7
모의 연령	30대 이하	477	34.2		대전/충청/강원권	208	14.9
	40대	896	64.3		대구/경북권	160	11.4
	50대	20	1.4		부산/울산/경남권	253	18.1
모의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67	26.5		광주/전라권	184	13.2
	2~3년제 대졸	403	29.1	가정의 경제적 형편	1 (매우 못 산다)	5	0.4
	4년제 대졸(5년제 포함)	523	37.8		2	4	0.3
	대학원 졸	90	6.5		3	12	0.9
모의 결혼 상태	미혼	1	0.1		4	37	2.7
	유배우-초혼	1,336	95.8		5	246	17.7
	유배우-재혼	16	1.1		6	224	16.1
	사별	6	0.4		7	277	19.9
	이혼	34	2.4		8	233	16.7
	별거	2	0.1		9	133	9.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62	40.2		10 (매우 잘 산다)	221	15.9
	중소도시	754	53.9				
	읍/면	83	5.9				

주. 결측치(아동 성=2, 모 연령=8, 모 최종 학력=18, 모 결혼 상태=6, 거주 지역 규모=2, 권역=2, 경제적 형편=9

www.kci.go.kr

으로 거의 균일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모의 연령은 40대가 896명(64.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30대 이하가 477명(34.2%), 50대가 20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최종 학력은 4년제(5년제 포함) 대학교 졸업이 523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2~3년제 대학 졸업이 403명(29.1%),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7명(26.5%), 대학원 졸업이 90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초혼이 1,336명(95.8%)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외 이혼 34명(2.4%), 유배우-재혼 16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754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대도시 562명(40.2%), 읍/면 83명(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권역은 경인권이 430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부산/울산/경남권 253명(18.1%), 대전/충청/강원권 208명(14.9%), 광주/전라권 184명(13.2%), 서울권 164명(11.7%), 대구/경북권 160명(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매우 못 산다' 1점에서 '매우 잘 산다' 10점까지 10단계로 구분해 측정했는데, 비교적 잘 사는 편에 속하는 7점이 277명(19.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5점 246명(17.7%), 8점 233명(16.7%), 6점 224명(16.1%), 10점 221명(15.9%), 9점 133명(9.6%), 4점 37명(2.7%), 3점 12명(0.9%), 1점 5명(0.4%), 2점 4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Robinson 등(1995)이 개발해 타당화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이 원본 척도를 국문으로 번역 및 수정해 패널 조사에 활용했다. 이 척도는 권위적 양육행동(authoritative parenting practices), 권위주의적 양육행동(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허용적 양육행동(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만을 발췌해 사용하였는데, 권위적 양육행동은 '양육에 임할 때 자녀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일관적 방식을 취하는 것'(문경임, 2022)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온정과 의사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양육행동이다. 권위적 양육행동 측정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27문항인데, 그 하위 요인으로서 '애정 및 관여' 측정에 11문항, '이성 및 유도' 측정에 7문항, '민주적 관계' 측정에 5문항, '친절 및 편안함' 측정에 4문항이 각각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간주해 27개 문항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변수를 단일 요인으로 간주한 이유는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 민미희(2020), 박정현(2022) 등의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으로 보았고, 특히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행동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이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측정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 범주가 이루어져 있다. 이 측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모는 권위적 양육행동을 행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애정 및 관여가 .842, 이성 및 유도가 .658, 민주적 관계가 .662, 친절 및 편안함이 .700으로 각각 나타났고, 모의 권위적 양육

www.kci.go.kr

행동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0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오소정과 이은주, 김영태(2012)가 개발해 타당화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척도 또한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원본 척도의 도구명은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이다. 이 척도에 의한 조사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통합 코드북상 문항 내용이 화용언어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동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담화관리는 '대화의 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은 '의사소통의 상황적 맥락을 활용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의도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다양성, 성숙도, 간접적 표현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측정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44문항인데, 담화관리 9문항,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15문항, 의사소통 의도 12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 8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각 하위 요인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합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 또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 범주가 이루어져 있다. 이 측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별 화용언어에 관한 능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담화관리 .88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944, 의사소통 의도 .929, 비언어적 의사소통 .88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오소정과 이은주, 김영태(201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7이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송현주(2014)가 개발해 타당화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척도는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계획-조직화 곤란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집중이나 조절 등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적정한 행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정서통제 곤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적정한 정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부주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뜻한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40문항인데,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각 하위 요인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합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로 응답 범주가 이뤄져 있다. 이 측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별 집행기능의 적절한 발휘에 있어 곤란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계

www.kci.go.kr

획-조직화 곤란이 .891, 행동통제 곤란이 .854, 정서통제 곤란이 .900, 부주의가 .912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송현주(201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 ver. 22.0과 PROCESS macro ver. 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각 변수별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인 아동과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수들의 분포 특성 및 정규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검토를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 (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모형 4번을 적용해 병렬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만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아동의 성(이은주, 김영태, 오소정, 2019; 하문선, 2021), 모의 교육 수준(Putri & Susanti, 2024), 가정의 경제적 수준(전혜인, 2016; Schneider & Linberg, 2022)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 3가지 특성 변수는 가설 검증 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종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인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매개변수인

표 2.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M	SD	왜도	첨도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3.85	.391	-.093	.315
화용언어 능력	담화관리	3.99	.528	-.424	1.77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4.13	.533	-.439	1.724
	의사소통 의도	4.07	.526	-.380	1.746
	비언어적 의사소통	4.16	.528	-.366	1.348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1.59	.434	.674	-.103
	행동통제 곤란	1.23	.298	1.766	3.246
	정서통제 곤란	1.41	.426	1.054	.763
	부주의	1.51	.449	.787	.113

www.kci.go.kr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인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측정값의 분포 및 정규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라 먼저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85(*SD*=.391)였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담화관리가 3.99(*SD*=.528),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이 4.13(*SD*=.533), 의사소통 의도가 4.07(*SD*=.526),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4.16(*SD*=.528)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계획-조직화 곤란이 1.59(*SD*=.434), 행동통제 곤란이 1.23(*SD*=.298), 정서통제 곤란이 1.41(*SD*=.426), 부주의가 1.51(*SD*=.449)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연구 변수별 측정값 분포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최소 .093에서 최대 1.766 사이에 분포했고, 첨도의 절댓값은 최소 .103에서 최대 3.246 사이에 분포했다. 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은 그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Ryu, 2011), 본 연구 변수들의 측정값 분포는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담화관리와 r=.416(p<.001),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과 r=.424(p<.001), 의사소통 의도와 r=.450(p<.001),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r=.433(p<.001)으로 나타났다.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수준

표 3. 연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1								
2	담화관리	.416**	1							
3	조절 및 적용능력	.424**	.887**	1						
4	의사소통 의도	.450**	.893**	.918**	1					
5	비언어적 의사소통	.433**	.846**	.893**	.870**	1				
6	계획-조직화 곤란	-.320**	-.419**	-.380**	-.426**	-.345**	1			
7	행동통제 곤란	-.273**	-.447**	-.432**	-.454**	-.399**	.662**	1		
8	정서통제 곤란	-.248**	-.300**	-.252**	-.306**	-.258**	.467**	.549**	1	
9	부주의	-.231**	-.286**	-.231**	-.279**	-.218**	.609**	.519**	.394**	1

**p<.001.

www.kci.go.kr

.001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계획-조직화 곤란과 r=-.320(p<.001), 행동통제 곤란과 r=-.273 (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48(p<.001), 부주의와 r=-.231(p<.001)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매개변수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들 간에도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담화관리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r=-.419(p<.001), 행동통제 곤란과 r=-.447(p<.001), 정서통제 곤란과 r=-.300(p<.001), 부주의와 r=-.286(p<.001)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은 계획-조직화 곤란과 r=-.380(p<.001), 행동통제 곤란과 r=-.432(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52 (p<.001), 부주의와 r=-.231(p<.001)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도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r=-.426 (p<.001), 행동통제 곤란과 r=-.454(p<.001), 정서통제 곤란과 r=-.306(p<.001), 부주의와 r=-.279 (p<.001)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계획-조직화 곤란과 r=-.345(p<.001), 행동통제 곤란과 r=-.399(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58 (p<.001), 부주의와 r=-.218(p<.00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검토 결과, 인과관계 검증 시 전제가 되는 요건 3가지(이훈영, 2021) 중 공변성(共變性) 요건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 1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 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연구 변수들과 함께 투입한 후, PROCESS macro 모형 4번을 적용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들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담화관리(B=.387,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B=-.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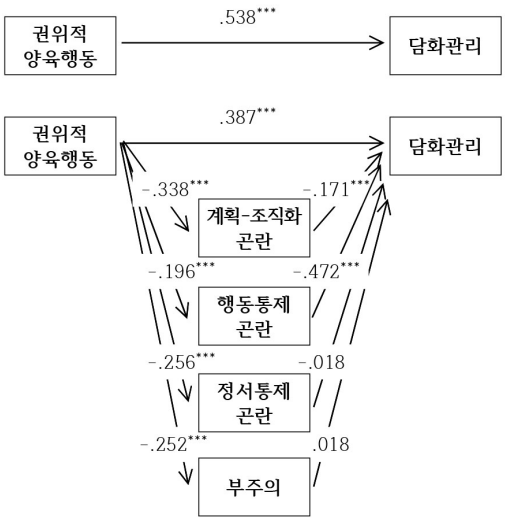


그림 2.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관리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www.kci.go.kr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란(B=-.171, p<.001)과 행동통제 곤란(B=-.472, p<.001)이 담화관리에 각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18, p>.05)과 부주의(B=.018,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총효과는 B=.538(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가 투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직접효과는 B=.387(p<.0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50[.116 ~ .188]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058[.031 ~ .087],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093[.061 ~ .127]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5[-.012 ~ .023], 부주의의 경우 -.004[-.023 ~ .013]으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

표 4.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관리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38	.033	.473	.602
직접효과	.387	.032	.324	.451
총매개효과	.150	.018	.116	.188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담화관리	.058	.014	.031	.087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담화관리	.093	.017	.061	.127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담화관리	.005	.009	-.012	.023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담화관리	-.004	.009	-.023	.013

표 5.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관리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35	.024	-.081	.011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53	.017	.021	.087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62	.019	.026	.101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88	.021	.047	.131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097	.021	.058	.140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09	.013	-.015	.035

www.kci.go.kr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35[-.081 ~ .011]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해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B=.420,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B=-.256,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란(B=-.144, p<.001)과 행동통제 곤란(B=-.555, p<.001)이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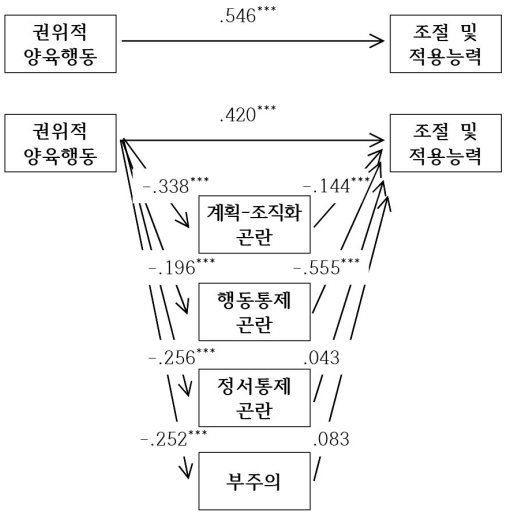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능력에 각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43, p>.05)과 부주의(B=.083,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총효과는 B=.546(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가 투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직접효과는 B=.420(p<.00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26[.092 ~ .161]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www.kci.go.kr

표 6.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46	.033	.481	.610
직접효과	.420	.033	.356	.484
총매개효과	.126	.018	.092	.161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049	.014	.022	.076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109	.019	.074	.146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011	.009	-.029	.006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조절 및 적용능력	-.021	.010	-.041	-.003

.049[.022 ~ .076],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109 [.074 ~ .146]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11[-.029 ~ .006], 부주의의 경우 -.021[-.041 ~ .003]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60[-.110 ~ -.013]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

표 7.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60	.025	-.110	-.013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60	.017	.027	.094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69	.020	.032	.109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120	.023	.077	.166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30	.024	.086	.177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0	.014	-.017	.036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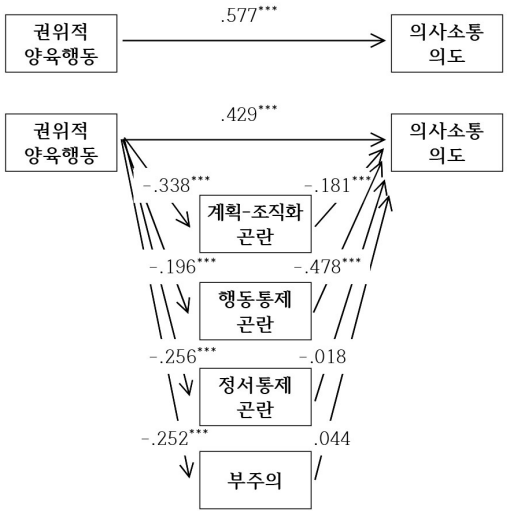


그림 4.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 의도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의도(B=.429,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B=-.256,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란(B=-.181, p<.001)과 행동통제 곤란(B=-.478, p<.001)이 의사소통 의도에 각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18, p>.05)과 부주의(B=.044,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총효과는 B=.577(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가 투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직접효과는 B=.429(p<.0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48[.115 ~ .184]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061[.035 ~ .089], 행동통제

표 8.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 의도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77	.032	.514	.640
직접효과	.429	.031	.367	.490
총매개효과	.148	.018	.115	.184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61	.014	.035	.089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94	.017	.062	.128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05	.008	-.012	.021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의사소통 의도	-.011	.009	-.029	.006

www.kci.go.kr

표 9.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 의도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33	.023	-.079	.012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56	.016	.025	.089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72	.019	.037	.110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89	.021	.049	.132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05	.021	.065	.149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6	.012	-.008	.040

곤란의 경우 .094[.062 ~ .128]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5[-.012 ~ .021], 부주의의 경우 -.011[-.029 ~ .006]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33[-.079 ~ .012]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해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4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변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비언어적 의사소통(*B*=.447,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B*=-.256,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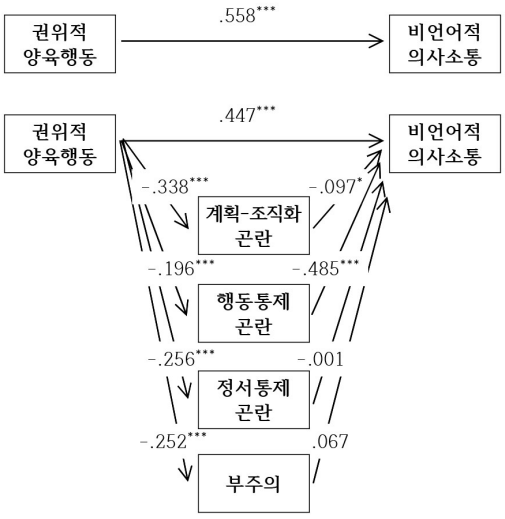


그림 5.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5, ***p<.001.

www.kci.go.kr

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란(B=-.097, p<.05)과 행동통제 곤란(B=-.485, p<.001)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각각 유의수준 .05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11, p>.05)과 부주의(B=.067,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11[.081 ~ .144]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033[.005 ~ .061],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095[.064 ~ .130]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0[-.017 ~ .018], 부주의의 경우 -.017[-.036 ~ .001]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

표 10.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58	.033	.494	.622
직접효과	.447	.033	.382	.511
총매개효과	.111	.016	.081	.144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33	.014	.005	.061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95	.017	.064	.130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00	.009	-.017	.018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비언어적 의사소통	-.017	.009	-.036	.001

표 1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62	.024	-.111	-.016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32	.017	-.002	.067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49	.020	.011	.089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95	.021	.055	.137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12	.021	.071	.156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7	.013	-.008	.043

www.kci.go.kr

-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62[-.111 ~ -.016]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인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각각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인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를 동시 투입하는 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 자료에서 추출하였는데, 연구 대상은 총 1,401명의 아동과 이들의 모(母)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서론에 제시한 연구 문제에 맞춰 차례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간의 상관성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아울러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도 모두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동일하게 활용해 이들 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한 오윤경과 장경은(2024), 이선희(2022), 민미희(2020), 김혜란과 김춘경(2021), 김은향(2020)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권위적 양육행동을 취하는 어머니는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자녀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녀의 바른 행동을 유도하며 민주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녀에게 친절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의 성향은 자녀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기능과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타인과 의사소통 시 안정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화용언어능력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행동 시 적절한 인지조절의 작동을 실패하도록 이끄는 집행기능의 곤란 또한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은 부(-)적 상관성을 갖고 있어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은 같이 개선되거나 같이 악화되는 것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공변(共變)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을 띤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 중 행동통제 곤란이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더 큰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가설 검증 결과를 해석 및 이해하는

www.kci.go.kr

데 중요한 준거가 돼 주었다.

둘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간 각각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이 갖는 병렬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의 성격은 부분매개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민미희, 2020; 이선희, 2022)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화용언어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김은향, 2020; 김혜란, 김춘경, 2021)에 기초할 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들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실증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검토하기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유의한 부분매개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집행기능의 개선도 아동상담 장면에서 전략적 유효성을 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미희(2020), 이선희(2022) 등의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도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더해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병행 전략도 취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해 이들 하위 요인 중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을 식별해 냄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 전략을 상담 실무에 적용할 때 정서통제 곤란이나 부주의보다는 이들 하위 요인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부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다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 중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들 하위 요인은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인과 경로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과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 간 인과관계는 세부적으로 실증된 바가 거의 없어(송현주, 2014) 그 이유를 추론할 실증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 두 요인이 계획-조직화 곤란이나 행동통제 곤란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이 정서적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큰데(Figueiredo et al., 2020), 이런 외현화 문제행동은 화용언어능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적 근거(이화진, 임지영, 2022)는 존재하지만,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관해 논의는 계속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중 모든 매개 경로에서 상대

www.kci.go.kr

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행동통제 곤란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실무상 전략적 유효성을 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와 더불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하위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크기 차이를 특정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는데, 유의한 개별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중 행동통제 곤란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도 실증하였다. 이 또한 관련 선행연구 보고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검토가 어렵지만,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행동통제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의 순으로 비중을 달리해 개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시 밝힌 것처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들과의 통계적 상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행동통제 곤란은 계획-조직화 곤란에 비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매개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상관성보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성이 더 높을 때, 그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우종필, 2022)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 및 견해에 기초할 때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아동의 행동통제 곤란이 화용언어능력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동이 행동에 집중하거나 이를 조절하는 행동통제를 잘할수록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더욱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왜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선행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으나, 행동통제의 유능성은 계획-조직화의 유능성보다 타인에게 쉽게 포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정히 통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외부로 쉽게 노출된다. 이 때문에 타인은 해당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행동통제를 잘 못하는 아동이라면 주변의 지인들과 안정감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또한 관련 지식이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 지속적 논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는 학령기 아동이 타인과의 안정적 의사소통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머니,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권위적 양육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근래 다자녀 가정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녀가 한둘밖에 없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다. 자녀의 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 부모들 중 자신의 자녀에게 심리적・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자녀 행동의 통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허용적 양육행동의 경향이 짙은 부모는 충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성취지향이 낮고 또래관계 형성 또한 서툰 여러 부정적 특성을 갖는 아동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이동훈 등, 2017; Sumargi, Prasetyo,

www.kci.go.kr

& Ardelia, 2020).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양육행동의 하위 유형 중 권위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권위적 양육행동도 자녀에게 허용적이고 자녀의 요구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 권위적 양육행동은 허용적 양육행동과 달리 자녀가 각종 규칙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엄격한 훈육과 통제 방식 또한 포함한다. 이같이 권위적 양육행동을 취하는 부모 아래 성장한 아동은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 바르며 성숙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Kang & Guo, 2022). 이런 이유로 권위적 양육행동은 여러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양육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Febiyanti & Rachmawati, 2021). 이처럼 권위적 양육행동은 양육행동의 여러 하위 유형들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기도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타인을 접하며 인적 관계의 세계가 크게 확장된다. 이 시기 적정한 화용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은 타인과 공존해야만 하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이다. 화용언어능력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의 유력한 원인변수로서 권위적 양육행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동의 어머니는 그 자녀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감적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조용주, 정남운, 2009)에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을 장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동의 어머니들 중 일상생활상에서 권위적 양육행동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도 많을 것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아동상담사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아동상담사, 아동의 어머니를 비롯해 학교 교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자간 협업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의 학부모를 비롯해 아동상담사, 교사 등 아동의 양육 지지 체계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해 모의 양육행동 변화 모색과 더불어 아동이 집행기능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훈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 시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행동통제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것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증진을 위해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또 다른 유효 전략으로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권위적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시키는 전략을 병행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 전략'을 구사하였을 때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더욱 안정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이중 전략을 취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권위적 양육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결과를 보인다면, 이를 변화시키는 데 상담 자원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전략의 추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대체로 성인에 비해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김성일, 2017; Verplanken & Orbell, 2022). 이러한 견해를 감안할 때 이중 전략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서 두 가지 전략 중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 전략에 우선 집중하는 것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차선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한다. 아동의 집행기능을 4가지 하위 요인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선

www.kci.go.kr

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계발 및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면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또한 이 두 가지 개선 활동 중에서는 행동통제 곤란의 개선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다양한 단계별 방안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고려 사항은 상담 자원을 무한대로 투입하기 어려운 초등교육 현장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미리 마련해 상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실행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교육당국은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특히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의 개선 활동 전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2021)는 최근 신경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집행기능 증진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긴 하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책적 사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학술적 활동도 미미한 편이다. 더군다나 아동의 집행기능 중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을 선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의 중요성, 특히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의 개선 필요성이 실증된 만큼 이를 취사선택해 집행기능 개선 활동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무 적용성을 높인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중이나 조절하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는 기술의 습득 및 장려에 초점을 맞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늘봄학교'와 같은 온라인 채널이나 방과후 교실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병렬다중매개효과와 유의한 매개변수 간 상대적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선행 변수로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만 상정하였는데, 이 외에도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이 여럿 존재함에도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한국아동패널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측정 자료와 함께 수집하는 다른 변수의 종류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구축되는 공공 데이터이므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인과성이 높은 여러 변수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자료 수집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표집을 통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함께 투입해 통제한 뒤에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다중병렬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한지, 또한 그 하위 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이 가장 큰 매개효과를 여전히 갖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 실증된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서수민, 2023)이나 부부갈등(이화진, 임지영, 2023), 어휘능력(송승하 등,

www.kci.go.kr

2017) 등이 투입 가능한 통제변수로 꼽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따랐다.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어 논의를 적정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엄밀한 연구 설계를 통해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강슬기, 서미정 (202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해동 간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4**(3), 39-60.

계결, 서주현 (2022). 부모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초기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2), 2885-2898.

공유경 (2023).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4**(2), 273-288.

김성일 (2017). 행동 변화가 어려운 이유: 습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교육논총, 290,** 75-79.

김은향 (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김혜란, 김춘경 (202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 간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과 스마트기기 중독의 이중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6), 99-114.

문경임 (2022).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2), 219-227.

민미희 (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박정현 (2022).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6**(2), 157-181.

보건복지부 (2021). **ICT 기반 신경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집행 기능 향상 앱 프로그램 스마트 브레인 개발.** 보건복지부.

서수민 (2023).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기질 및 기질 조화적합성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2**(2), 21-34.

송승하, 김영태, 이수정, 김정아 (2017). 시청각적 담화 과제를 활용한 4-10세 아동의 화용언어 발달 및 어휘능력과의 상관도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218-232.

www.kci.go.kr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양윤희, 임동선 (2018). 학령전기 어휘발달지연 및 또래 아동의 어휘습득을 위한 집행기능의 역할.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3**(1), 43-59.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21**(2), 111-135.

오윤경, 장경은 (2024).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권위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44**(3), 5-26.

우종필 (202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개정판). 한나래출판사.

이동훈, 양모현, 양순정, 양하나, 강은진 (2017). ADHD 증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143-1168.

이래혁 (202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주의력 결핍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32**(1), 1-8.

이미숙 (2016). 후천성 뇌손상 환자의 화용언어와 집행기능 간 상관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5), 58-67.

이선희 (2022).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7**(2), 199-218.

이은주, 김영태, 오소정 (2019). 6-9세 아동의 연령, 지능, 어휘수준, 성별, 그리고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76**, 111-135.

이화진, 임지영 (2022).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2), 93-113.

이화진, 임지영 (2023).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4**(1), 15-27.

이훈영 (2021). **이훈영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제2판). 도서출판 청람.

장영은, 성미영 (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전숙영 (2018).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41-54.

전혜인 (2016). **어휘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기 저학년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정, 이주연 (202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177-1199.

조용주, 정남운 (2009).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15-941.

진연선, 배소영 (2013). 교실환경을 반영한 상황에서의 학령기 고기능자폐장애와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8**(3), 241-257.

천희영 (2021). 취약전환기 맞벌이 가정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와 집행기능 곤란 및

www.kci.go.kr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109-132.

하나영, 이경은 (202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11**(5), 2241-2256.

하문선 (202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잠재계층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및 영향변인 검증: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2**(4), 801-825.

한영숙, 정영선 (2022).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경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43**(3), 247-261.

홍은비, 정은숙, 노성향 (2021).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아동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어머니 취업유무 조절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4), 99-114.

Anthony, C. J., & Ogg, J. (2020). Executive function,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science growth from kindergarten to fourth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8), 1563.

Ayano, G., Demelash, S., Gizachew, Y., Tsegay, L., & Alati, R. (2023). The global preval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mbrella review of meta-analy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39*, 860-866.

Beisly, A., Kwon, K. A., & Jeon, S. (2020). Executive function and learning behaviors: Associations with academic skill among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15), 2469-2483.

Brown, T. R., Jansen, M. O., Lin, B. Y., Rogers, C. E., & Xu, K. Y. (2024). *The reporting of race and ethnicity in the conduct disorder literature: A time-sensitive review*. Psychiatric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https://doi.org/10.1176/20240009

Figueiredo, P., Ramiao, E., Azeredo, A., Moreira, D., Barroso, R., & Barbosa, F. (2020). Relation between basal cortisol and reactivity cortisol with externalizing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Physiology & Behavior, 225*, 113088.

Febiyanti, A., & Rachmawati, Y. (2021). Is authoritative parenting the best parenting style?. In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CECE 2020)* (pp.94-99). Atlantis Press.

Groves, N. B., Wells, E. L., Soto, E. F., Marsh, C. L., Jaisle, E., M., Harvey, T. K., & Kofler, M. J. (2022). Executive function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6), 721-735.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ed). The Guilford Press.

www.kci.go.kr

Kang, J., & Guo, H. (2022). The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on young adult children's prosocial behaviour: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regulation. *China Journal of Social Work, 15*(2), 162-177.

Mackie, L., & Law, J. (2010). Pragmatic language and the child with emotional/behavioural difficulties (EBD): A pilot study exploring the interaction between behaviour and communication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5*(4), 397-410.

Polan, E. U., & Taylor, D. R. (2021). **인간 성장과 발달: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의 이해** (정연, 정선영 외 공역). 현문사. (원본 출판 2019년).

Putri, A. R., & Susanti, N. (2024). Association between mother's educational status and home literacy environment with the language abilities of seven year-old children: Path Analysis evidence. *Placentum: Jurnal Ilmiah Kesehatan dan Aplikasinya, 12*(1), 43-50.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Ryu, E. (2011). Effects of skewness and kurtosis on normal-theory based maximum likelihood test statistic in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ehavior Research Methods, 43*, 1066-1074.

Saccaro, L. F., Schilliger, Z., Perroud, N., & Piguet, C. (2021). Inflammation, anxiety, and stress in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iomedicines, 9*(10), 1313.

Schneider, T., & Linberg, T. (2022).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gaps in children's language skills in Germany.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13*(1), 87-120.

Silverstein, M. J., Faraone, S. V., Leon, T. L., Biederman, J., Spencer, T. J., & Adler, L. A.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function deficits and DSM-5-defined ADHD symptom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4*(1), 41-51.

Spiegel, J. A., Coodrich, J. M., Morris, B. M., Osborne, C. M., & Lonigan, C. J. (2021). Relations between executive functions and academic outcom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7*(4), 329.

Sumargi, A. M., Prasetyo, E., & Ardelia, B. W. (2020). Parenting styles and their impacts on child problem behaviors. *Jurnal Psikologi, 19*(3), 269-284.

Tsai, S. J. (2020). The importance of measuring problematic smartphone use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the*

www.kci.go.kr

Chinese Medical Association, 83(9), 803-804.

Verplanken, B., & Orbell, S. (2022). Attitudes, habits, and behavior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3*(1), 327-352.

Yilbaş, B., & Karadeniz, P. G.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otype and impulsivity, attention-deficit disorder, internet, social media, and smartphone addiction. *Alpha Psychiatry, 23*(4), 203.

www.kci.go.k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4, Vol. 37, No. 4, 117-143

Verification of the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Eunsu Jung

Uljin Child, Youth and Family Counseling Center Director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four sub-factor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have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 four sub-factor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demonstrated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 sub-factor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of which were significant. The mediation effects were identified as partial mediation. Second, an analysis of the specific mediation effects showed that, among planning-organiz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control difficulties, both of which showed significant simple mediation effects, behavior control difficulties had a greater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words :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Pragmatic Language Skill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www.kci.go.kr